땅의 삶과 현실감은 별개다

(이사야 26:1~21)

1.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2.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5.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6.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7.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땅의 삶과 현실감은 별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땅의 삶과 현실감은 별개다'
땅의 삶과 현실감이 별개라는 말에 고개가 갸우뚱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절대로 땅의 삶이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이사야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열 나라의 멸망에 관한 예언 이후에 본문에서는 어느 특정한 제한된 국가가 아닌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평에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특별한 점을 향하여 집중포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보게 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언자의 본업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민이 하나님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가를 측정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포화가 어디로 집중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기쁨을 추구함으로 심판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기쁨거리를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자들의 삶이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외에 안정감의 토대를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심판은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쁨과 안정감을 포괄하는 보다 근원적인 의미를 가진 현실감에 심판이 집중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실감은 기쁨과 안정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아닌 것에서 기쁨과 안정감을 찾지 못합니다. 현실감이 기쁨과 안정감의 전제 조건이고 공통된 기반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나 안정감과 마찬가지로 현실감은 삶을 출발하기 전에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감으로부터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을 두고 현실을 살아간다고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출발시키고 삶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현실감은 삶과 별개입니다. 참된 현실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에는 성취와 보람이 있습니다. 또 기쁨과 안정감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휴가 때에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을 마흔 분 이상을 만났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목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의 현실감이었고 아울러 저 자신의 현실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계의 현실, 신학대학의 현실, 목사님들의 가장 우선적인 현실감의 내용은 목회 현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목회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교수님들은 대학의 상황이 우선적인 현실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교계 상황의 현실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교수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제가 칼 바르트를 공부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학사상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 바르트의 신학은 주로 학문적 관점에서 이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학이 신앙인들의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 명 정도 모였는데, 대화를 곰곰이 짚어보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을까요? 아닐까요?”라고 말씀드리자 다들 의아해하시다가 웃으십니다.
이 질문이 무례할 수도 있지만 전례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90이 넘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의 일입니다. 장로회 증경총회장님들은 물론이고 교단을 초월하여 교계의 원로들께서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말씀을 나누시고 떠나실 때에 한 원로 목사님께서 한경직 목사님께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사양하시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계속되는 부탁에 하신 말씀이 바로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증경총회장님들에게 하실 말씀이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이러한 말

씀을 하셨기에 저도 다소의 무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려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의 현실이십니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상황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길을 가고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5~9절 이하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황이 나의 현실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 말씀을 잣대로 삼아 다른 상황에 적용해봅니다. 목회 상황이 현실이라면 목회를 믿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의 상황이 현실이라면 신학대학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 현장의 상황을 현실로 느낀다면 장로님은 사업 현장을 믿는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의 상황을 현실로 느낀다면 그 분은 가정 상황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감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 현실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감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이사야는 예언적으로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을 현실감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만이 현실이심을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주제가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말과 어떻게 동의어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실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감이 곧 믿음이라면 우리가 처한 상태는 보다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상태를 더 이상은 묻어둘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할 때입니다. 현실감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첫 번째 조건은 실제로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사건이든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둘러싼 요소들 중에 실재하는 것이 몇 개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재하는 것들이 전부 나의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수백 개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

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현실의 두 번째 조건이 나타납니다. 내가 마음을 주는 것이 삶의 현실이 됩니다. 내가 마음을 주면 마음이 닿는 곳에서 현실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좋아하고 지향하면서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싫어하거나 반대함으로써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애인에게 마음을 줄 때와 원수에게 마음을 줄 때의 상황은 다르지만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둘 다 나의 현실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진리에 입각한 신앙고백의 내용을 함축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Credo)'라고 합니다. 크레도는 단어이면서 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심장'이라는 명사와 '준다.'라는 뜻의 동사가 복합되어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믿음은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부분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말은 '성령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심장을 꺼내어 드림에 이어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공회" 즉 공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심장을 꺼내어 드린 자들의 전체 모임입니다. 어딘가에 모여야만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페루 같은 곳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나와 함께 공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실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나의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내가 마음을 주는 사실들이 나의 현실이 됩니다. 내가 마음을 줌으로써 현실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실감을 느끼는 대상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현실감과 믿음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불신앙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현실감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현실로 느끼고 마음이 닿아있는 첫 번째 관심사가 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에 마음 심장을 꺼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께 꺼내 드려야 할 마음 심장을 다른 대상에

게 꺼내어 주고 있을 뿐입니다. 현실감은 곧 믿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업 현장에서 돈이 안 벌리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의 현실은 사업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레도는 ‘심장을 꺼내어 드린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업에게 마음 심장을 꺼내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담고서 고민하는 대상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에 대한 이야기에 흠뻑 빠져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행되는 사역의 현장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목회 현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인’으로 지칭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신의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목회 현장을 현실로 받아들인 목사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 현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지켜나가는 성도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신의를 지킨 자들이며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을 자들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들은 왜 목회 현장을 현실로 택하게 된 것일까요? 나는 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자녀 문제에 마음을 주게 되었을까요? 심지어 원수에게 마음을 주게 된 것일까요? 원수에게 마음을 주었다면 원수를 믿는다는 뜻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원수와의 관계가 현실이라면 나는 마음으로 원수를 믿는 것입니다.
마음은 근본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갈구합니다. 이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갈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진정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수와의 관계를 현실로 느끼는 동안에 우리는 원수에게 마음을 줍니다. 원수가 나의 기쁨과 만족을 좌우하는 존재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원수가 없어지는 것만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고, 원수가 나의 기쁨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대상임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애인은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하는데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상태입니다.
전철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몸과 몸이 닿았지만 그 사람은 나의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에 가 있는 애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의 현실입니다.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몸이 붙는다고 현실이 아니라 마음 가는 곳이 현실입니다. 마음이 가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안정감이 주어지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대학을 현실로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 나의 기쁨과 만족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김 장로님은 왜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요? 사업

을 통해서만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현실로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목회 현장을 현실로 인정할지언정 삼위일체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내 상황이나 학계의 상황을 현실로 여기는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을 현실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현실로 믿고 나가는 자들은 삶의 상황으로부터 주어지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박감을 뚫고 나갑니다.
내가 아버지로써 자녀 앞에 있다면 아버지라는 입장이 현실로 우선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녀 앞에서 아버지이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현실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유일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메시아이시기에 이 사건은 신앙의 사건으로써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지금의 사건이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나 지금의 사건으로 내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사업이 안 된다는 상황보다 자녀 일이 잘 안 된다는 상황보다 심지어는 몸이 아픈 상황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삶의 상황이 마음에 접수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 마음을 보내서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이끄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삼위일체로 교제하심으로써 기쁨과 평강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닿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실감이야 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겪는 상황은 나의 진짜 현실이 아닙니다. 당장 대출이 안 돼서 회사가 부도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의 현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의 객관적 크기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 비할 수 없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써 나와 함께하시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이 망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현실로 관계하고 나서 대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될 때에, 내 마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현실이 됩

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르면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제1의 창조에 이어지는 제2의 창조가 일어나는 현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아닌 하나님이 채택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대상과 마주하더라도 내 마음을 드려야 될 현실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뿐입니다. 그럴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의 현실이 되시고 이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결코 삶을 현실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감과 믿음은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빠져있고 고민하게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믿음의 정체가 밝혀지고, 하나님께 연결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세상이 현실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현실로 여기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현장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실로부터 기쁨과 평강의 물결이 이 세상을 향하여 줄줄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